

LPGA 세이프웨이 인터내셔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로레나 무섬증'이 번갈 조짐이다. PGA 투어에서 우승 경쟁을 벌이던 선수들이 스스로 무너져 타이거 우즈(미국)에게 우승컵을 헌납하는 현상이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시즌)를 상대하는 LPGA 투어 선수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 '오초아 무섬증'

22언더 우승...시즌 2승째

이지영 역부족...7타차 2위



8개월째 이어진 한국 선수의 우승 갈증을 끌어줄 것으로 기대했던 이지영(23·하이마트)도 '로레나 무섬증'을 피하지 못했다.

챔피언으로서 오초아와 함께 경기를 펼친 이지영은 중반부터 뒷걸음질을 걸어 경기에 서 탈락, 이븐과 72타로 경기를 마쳐 준우승(15언더파 273타)에 만족해야 했다.

이지영과 함께 1타차 공동2위로 최종 라운드에 나섰던 안젤라 스텐퍼드(미국)는 이날 2오버파 74타를 친 끝에 공동4위(13언더파 275타)까지 밀려났다.

오히려 공동 27위에 머물러 있어 오초아를 따라 잡을 엄두를 내지 못했던 지은희(22·활라코리아)가 부담없이 경기를 치른 덕에 7언더파 65타의 맹타를 터트려 스텐퍼드와 함께 공동 4위까지 뛰어 올랐다.

박희영(21·이수건설)은 2언더파 70타를 쳐 공동 9위(11언더파 277타)로 올라서 데뷔 이후 처음 '톱10'에 들었다.

이 대회에서 네 차례 우승한 로라 데이비스(잉글랜드)와 세 차례 정상에 오른 소렌스탄은 나란히 9위(11언더파 277타)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오초아는 지난달 31일(한국시간) 애리조나주 스퍼스티션마운틴의 스퍼스티션마운틴골프장에서 열린 LPGA 투어 세이프웨이 인터내셔널 최종 라운드에서 6언더파 66타를 쳐 4라운드 합계 22언더파 266타로 우승했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정상에 오른 오초아는 올해 세 차례 대회에서 우승컵 두 개를 모아 상금랭킹 3위에서 1위(55만5천550달러)로 뛰어 올랐다.

1타차 불안한 선두로 경기에 나섰지만 18번홀을 마치자 2위 그룹과 타수차가 무려 7타까지 벌어진 완벽한 우승이었다.

22언더파 266타는 앤디카 소렌스탄(스웨덴)이 2001년에 문밸리골프장에서 세웠던 대회 최소타 기록(261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004년부터 스퍼스티션마운틴골프장

재미교포 박진 공동 42위

PGA 취리히클래식 최종

아르헨티나의 새별 앤드레스 로메로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처음으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로메로는 지난달 31일(한국시간)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루이지애나TPC(파72·7천341야드)에서 열린 PGA 투어 취리히클래식 최종 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쳐 함께 13언더파 275타로 피터 로나드(호주·276타)를 1타차로 따돌렸다.

로메로는 26세에 불과하지만 작년 브리티시오픈에서 3위에 오르며 주목을 받았다.

재미교포 박진(31·던롭스릭슨)은 3언더파 285타, 공동 42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수창초등 야구팀



소년체전 광주대표

1일(화)

▲ 2008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주니치>(17 : 45·SBS스포츠)

▲ 2008 프로야구<삼성·LG>(21 : 00·SBS스포츠), <기아·두산>(18 : 30·MBC ESPN)

▲ 2008 메이저리그(LA에인절스·미네소타)(07 : 50·XPORTS)

▲ 07/08 프로농구 PO 준준결승 2차전 <LG·삼성>(18 : 50·XPORTS)

2일(수)

▲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AS로마·맨체스터Utd>(03 : 30·MBC ESPN)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 서비스국(062)220-0551

꼼장어숯불구이

북구 두암동 589-4 미라보@ 각하주공@시이
꼼장어숯불구이·먹방숯불구이 전문점

☎(062)261-2264

보은약국

북구 두암동 국민보험공단 뒤편
성실한약국, 친절봉사

대표 오 병 철
☎(062)251-5700

수완공인중개사

광산구 장덕동 하남공단3번도로 하나은행
하남공단경매예매·임대·수입구상가·APT 분양전문

대표 정 준 국
☎(062)952-0117

해뜨는집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뒤편
고등어구이 전문점 대체한류명(아구구제주정통해제)

대표 이 승 범
☎(062)222-1818

쿨&핫

북구 각학동 흠플러스 주차장입구 뒤편
퓨전소주바·매운김비빔·생대일탕 깻잎통닭

대표 윤 현 준
☎(062)434-4986

베스트정보

화정동 서광주 세무서와 모아@건너 협업
SK, KTF, LG 취급업소
마케팅팀장 정 재 환
☎(062)372-0017

건강식당

동구 궁동 예술의거리 동북경찰서 주차장옆
시골생활 건강식당 유기농체소 : 100%천연
식물성재료(국립농산물품질검사인증)
☎(062)236-3679

한빛골

북구 용봉동 전대후문 맞은편 스트리브스골목
심검살·행정살·갈비기살·우검살·천연수정들판
대표 장 종 훈
☎(062)265-9013

정원

동구 금동 구시청사거리
일식전문·아외도시락·침치전문
대표 노 동 찬
☎(062)366-8000

(주)돈가원

서구 풍암동 동부@와 서창 농협 맞은편
막창구이·오돌뼈·삼겹살·한정살·가브리살
대표 구 연 정
☎(062)652-9272

연송한우촌

북구 양산동 청암@ 앞
한우 전문점
대표 김 종 석
☎(062)572-5100

경동보일러(광주대리점)

북구 우신동 인보관 4거리 코리아극장정
심야전노일발·심야온기·전기온수기·온수기·온수기
대표 정 찬 식
☎(062)527-8879

미소튀김

동구 계림동 한국회장포 뒤편
튀김전문점(치킨·배달·시리즈인분 서비스)
대표 정 동 현
☎(062)233-8246

행복이용원

서구 회정동 대주@후문 염주애선 정문앞
1급 모범업소·기술본위
대표 박 충 수
☎(010)2626-9225

김샘건강코디샵

북구 운암동 현대월빙랜드 2층
스포츠미사지·피부경력·발관리·화원수시모집
대표 김 성 경
☎(062)529-8275

창평안봉순대

북구 오치동 서산초등학교 맞은편
안봉순대·국밥전문
대표 신 종 훈
☎(011)2360-3258

델리돈스

북구 용두동
정통돈가스전문점·신축배달
녹차·마인·돼지고기 사용한 속성도가스
☎(062)572-5551

만들종합수리

북구 중흥2동 전대정문앞
33년의 노하우 전문점
대표 박 경 환
☎(062)513-8519

아해다방

북구 중흥동 말바우시장건너 고교구 일자
유자처·생화처·생강처·더덕즙
대표 이 금 자
☎(062)526-1433

유학허브

동구 대의동 동부경찰서와 금남로방향
정규조기유학·어학연수·비자상담·환영
대표 이 춘 화
☎(062)263-3434

한금례반찬

서구 회정동 무미@정문앞
도시락·반찬(6잔)+국=배달
대표 한 금 래
☎(062)376-5388

돈우명가

북구 두암동 동광주 우리병원 옆골목
한우생고기·한우생식·생삼겹·단체손님환영
대표 두 상 현
☎(062)267-2653

공간연출(두암점)

북구 두암동 구면허시험장 쪽
고급설비·장판·상판·케이블·커튼·공장직영·리모델링
대표 두 상 현
☎(062)266-4460

현대셀프세차타운

북구 매곡동 미라이동 병원 건너편
대표 정 경 진
☎(062)574-3777

광주화랑권투체육관

동구 동명동 법원거리와 조선대학교 사이
복싱관원 신입회원 수시모집
대표 오 병 철
☎(062)228-1800

천상태극동자

북구 중흥동 효광초등학교 후문쪽
사주·궁합(영으로 봅니다)
대표 우 읍 향
☎(062)432-4226

억울한 삼세판...기어이 해냈다

한국 여자핸드볼

우여곡절 끝에

올림픽 본선행

한국 여자핸드볼의 2008 베이징올림픽 본선행은 그 어느 때보다 험난했다.

임영철 감독이 이끄는 여자핸드볼 대표팀은 지난달 30일 밤(이하 한국시간) 프랑스 남부도시 님 실내체육관 '라 파르나세'에서 펼쳐진 국제핸드볼연맹(IHF) 올림픽 최종예선 3조 풀리그 최종전에서 코트디부아르를 38-21, 17점 차로 물리쳤다.

한국은 2승1무(승점 5)를 기록, 최소한 조 2위를 확보하며 올림픽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다.

올림픽 2연패(1988년, 1992년)에 준우승 3차례(1984년, 1996년, 2004년), 세계선수권대회 우승(1995년) 등 세계최강 수준으로 군림하던 여자핸드볼 대표팀은 베이징올림픽에 나가기 위해 작년부터 무려 세 차례나 예선을 치르는 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원인은 아시아핸드볼연맹의 편파판정 때문이었다. 작년 8월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 한국은

접했다.

IHF가 과정에서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 예선 결과를 모두 무효로 한 뒤 재경기를 결정한 것이다.

최종예선을 치르지 않고도 곧바로 베이징으로 갈 기회를 얻은 한국은 지난 1월 말 일본에서 열린 예선 재경기 단판승부에서 일본을 13점 차로 대파하고 올림픽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다. AHF의 재경기 결정에 대해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했고, 결국 여자 예선 재경기 결과는 취소되고 말았다. 남자 재경기 결과는 그대로 인정돼 다행스러웠지만 여자 대표팀은 다시 고난의 행군을 치러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CAS의 결정이 나온 건 IHF 최종예선이 열리기 일주일 전이었다. 이를간 손발을 맞춘 대표팀은 꽁고와 첫 관을 가볍게 승리한 뒤 훌륭 프랑스와 2차전에서 무승부를 일궈내며 사실상 본선행을 확정했다.

정선민 MVP

여자프로농구 시상식



여자프로농구(WKBL) 안산 신한은행을 통합 우승으로 이끈 '바스켓퀸' 정선민(34·사진)이 2007-2008 시즌 최고의 선수로 선정됐다.

정선민은 지난달 31일 용산 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우리V카드 2007-2008 여자프로농구시상식에서 기자단 투표 67표 중 67표를 훨씬 앞지어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다.

이로써 정선민은 여자프로농구 출범 이후 통산 여섯 차례나 정규리그 MVP가 되는 영광을 안았다.

정선민은 올 시즌 34경기에